



'Faces of Healing'



■ 주안에 힐링캠프

9월 18일
부터 3박4일
간 빅베어 파인크
레스트에서 열린 제3기
'주안에힐링캠프'에 190여명
의 Seekers와 Supporters가 참가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

'13가지 만나'로 치유·기쁨·평화! (Manna)

얼마나 기다렸나...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제3기 주안에 힐링캠프가 지난 9월 18일(주일) 오후부터 9월 21일(수)까지 3박 4일동안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는 여러가지 교회의 일정상 힐링캠프가 열리지 못하여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문의와 아쉬움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힐링캠프가 은혜중에 열리게 되어,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복되고 또 단비와도 같은 기회가 되었다.

90명의 Seekers(캔디)와 100여명의 Supporters가 참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함으로, 얼마나 많은분들이 힐링캠프를 기다리고 사모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과 타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지않는 사람들도 많이 참석하여, 3박4일동안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최혁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각자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해온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모두가 너무나 은혜가 넘쳤고,

섬기기 위해 올라갔던 Supporters 모두도 봉사 도중 틈나는대로 말씀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다시한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6면에 계속> | 이광영 기자 |

주안에 9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Sep. 2016 Vol.4 No.10

■ 전교인 야외예배 준비모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해 아름다운 예배를

10월 16일 있을 전교인 야외예배를 위한 1차 준비모임이 8월 28일 오후 3시 30분 LA 채플에서 있었다. 벨리를 포함 LA와 플러튼 채플까지 모두 세 채플에서 총 50여명의 리더가 모였다.

모임에 앞서 말씀을 전하신 박현동 목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2~4절을 함께 나누었다.

냉철한 바울은 속정이 깊은 사람이다. 빌립보교회를 향한 속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육중 서신 빌립보서는 빌립보를 향해 한마음을 품자 말하지만 한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같은 마음 혹은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 혹은 베푸는 행위 같은 뜻 또는 목적을 가질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교인 체육대회의 성공을 뒤로 하고 계획되는 야외예배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려



고 모든 최선을 다하자 다짐했다.

이방걸 장로는 전체 준비내용 스케줄 등을 전달하며 체육대회가 아닌 야외예배인 만큼 모든 성도들의 참석을 독려할 것과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참석인원을 9월 25일까지 행정팀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정도영 장로는 야외예배 이후에 체육대회 때가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피구, 줄다리기, 릴레이, 박채우기와 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예배시간 이전 도착을 응원하기 위해 풍성한 상품이 걸린 보물찾기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

다. 이외에 공개할 수 없는 새로운 게임도 준비중이라고 귀뜸도 있었다.

우리교회의 행사가 항상 성공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며 물질적인 거리감을 떨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모여 준비함으로 인해 행사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기 때문이다. 세 채플에서 모든 리더들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성공적이었던 체육대회보다 더 노력해서 세 개 채플이 어우러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다짐에 다짐을 한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예빛

3개채플 30여성도들 함께 심도깊은 말씀공부



제 3기 ‘주안에 빛’이 지난 8월 30일(화) 저녁 7시 30분 LA채플에서 시작되었다.

11월 12일까지 12주동안 이어지는 이번 주안에 빛은, 지난 2기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90일 통큰통독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역자님들께서 1강좌 또는 2강좌를 맡아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이 통큰통독의 특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정리하므로 훨씬 이해가 빠르고 또 재미도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번 강좌에는 LA채플은 물론 플러튼과 벨리채플에서도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어 총 29분이 배움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이동하는 약간의 불편함보다는 말씀에서 주는 기쁨이 훨씬 크고 은혜롭다고 플러튼채플 이계순권사님은 환하게 웃는다. 또



한 교재안에 포함되어있는 ‘성경일독 CD’를 차 안에서나 집에서 틈틈히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고 권하고 있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시대별로 되어있는 통큰통독 성경책을 구입하여, 매주 공부한 분량만큼 성경을 읽어나가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주안에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이수해야하는 평신도 양육과정 중 하나인 주안에 빛은, 해

를 거듭할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어 성도님들의 영혼을 더욱 살지게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이어질 4기 5기 강좌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꼭 참여하시어 성경 전체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시고 나면, 담임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 속도가 빠르고 은혜가 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이광영 기자 |

■ 임직예정자 훈련

직분자들의 자세와 섬김 10개월간 체계적 훈련

주안예교회 창립 3년만에 처음 있었던 임직예정자 피택과 피택된 임직예정자를 위한 주안에훈련이 지난 9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70여명의 임직예정자들과 교역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LA chapel 에서 시작 되었다. 임직예정자 훈련은 주안에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주안에서역 중 '주안에제자' 훈련과정으로 주안예교회 평신도사역자가 받게되는 필수 훈련과정이다.

훈련과정은 지난 9월 3일 부터 내년 6월 17일까지 매달 첫째와 셋째 토요일 하루3시간씩 총 10개월 60 시간의 최혁 목사를 중심으로 주안예교회 장로들이 참여하는 LA Chapel 에서의 강의와 토론, 임직예정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매일 성경읽기, 매일 기도, 주중 새벽예배 참석, 독서와 독후감등의 철저하고 잘 짜여진 과정이다.

주안예교회는 모든 임직예정자들이 이 훈련과정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직분 맡기에 합당한 주안에 제자인 존경받는 주안예교회의 권사와 안수집사로 다져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혁목사의 직분론 강의에서는 직분의 필요



성은 성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케하여 보상을 아끼지 않는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또한 머리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모든 직분자들이 통일성 있게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직분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는 보상이 있다. 직분에 합당한 자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자이며 거듭나지 않으면 직분에 합당치 않다. 직분자는 주의 것으로 모든 사역을 주의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직분자의 섬김과 다스림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최혁 목사의 구체적이며 재미있는 강의는 모든 피택자들에게 신앙에 도전을 주어 다시 한 번 결단하고 확정하는 경험을 하게 하였으며 지루할 것 같았던 토요일 오후 3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아쉬워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 했다.

| 박창신 기자 |

■ 힐링캠프 후원 골프대회

친목 다지고 힐링캠프도 돕고... 필드엔 웃음 가득

주안예교회 4회 GOLF 대회가 지난 8월 27일 12시에 PASADENA에 있는 BROOKSIDE GOLF CLUB 에서 있었습니다.

힐링캠프 후원을 목적으로 진행된 대회라서 인지 간소하게 뜻있는 분들과 가볍게 친선 게임으로 즐기는 듯 했습니다. 36명의 선수들이 4명씩 한조가 되어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골프장의 확 트이고 드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위에 여기 저기로 굴러가는 각자의 개성들을 맘껏 표현한 색색의 조그마한 공들은 군데군데 벵커와 호수가 있어 따가운 햇볕 더위 속에 시원하게 내뿜는 분수의 물줄기에 매료되어 잠깐의 생각이 흩어지면 여지없이 공은 물로 풍당 떨어져 버린답니다.

PAR3 홀에 근접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골퍼들은 한타의 굿샷으로 굴곡이 있지만 차분하게 잘 다듬어진 그린위의 홀에 가까이 올려놓으려는 마음으로 다들 임하였으나 조금이나마 욕심을 내었던 분들의 공들은 여지없이 주위에 매복해있는 호수로, 벵커의 모래위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되고, 마음을 조금하게 가져서도 안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과 마음을 비우는 심정으로 작은 홀을 향하여 날아 나이스샷! 이 한타의 골프공은 골퍼들의 상태를 여지없이 정확히 표현해 주었습니다.

팀장 김재동 안수집사의 간단한 김밥과 미숫가루는 더위에 느슨해진 골퍼들의 마음에 에너지 충전의 활력소가 되어 다시 찾은 생기로 신중하고 멋진 샷으로 마지막 18홀까지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도네이션으로 받은 상품들은 참가자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트로피는 남자 챔피언 케빈 허 피택안수집사, 여자 챔피언 유영애 피택권사, 시니어(66세이상) 박성진 집사, 장타상 안덕문 안수집사, 남녀 근접상 강경술 안수집사, 김정자 권사가 받았습니다.

| 오윤선 기자 |

은혜의 강단
최혁 담임목사

‘예루살렘 교회(2)’ (The Church 교회론(3) · 사도행전 1:8)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모임으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개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로 부름 받은 개인에게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권능은 ‘두나미스’로 능력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냐’고 질문을 합니다(행1:6).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고 믿는 한국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나미스’는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오는데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입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지만,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한 사람입니다(마 16:16).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며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극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칭찬에 베드로는 그만 자기 페이스를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이에 항변하며 반대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며 꾸짖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방해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정복자였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만나자 절을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동안에 고생과 수고가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급히 내려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행10:26).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

고 변한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진리를 지킬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말씀대로 살며 진리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다짐을 했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진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목숨 걸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공동체임과 동시에 우리 개인의 모습입니다. 부름을 받으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사 한 분이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순종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만

나는 사람마다 제가 교만하다며 비방을 하고 다녔습니다.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40일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둘 중에 한 사람을 이 교회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은 ‘그 집사는 내 아들이다. 그가 성장을 못해 마음이 아프다’ 하시며, 우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좋은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고, 한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하는 제 모습에 대한 회개를 하자 그분에 대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그분을 만나자 바로 그분을 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분이 점점 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인젠가는 어머니와 함께 먹으라며 계란을 한 판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 집사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 안에 들어와 진리의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주안에 교회가 성령의 능력(두나미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조성운 기자 |



- 10/1(토) 임직예정자 훈련 (장소: LA채플)
- 10/9(주일) 전체 교리학교 / 주안예배 예비훈련 (장소: LA채플)
- 10/15(토) 임직예정자 훈련 (장소: LA채플)

- 10/16(주일) 주안에 야외예배/운동회 (장소: PASADENA BROOKSIDE PARK)
- 10/19(수), 20(목), 21(금) 세례식/성찬식
- 10/23(주일) 항존직 훈련 (장소: LA채플)

새학기 주안에교회 교육방향 점검 헌신 다짐

아이들의 새학기를 시작으로, 8, 9월 주안의 교회 교육부 세 채플에선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제히 크고 작은 모임들이 시작이 되었다.

먼저 정기 학부모, 스텝 모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 모임에 최 혁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교회가 지향하는 교육부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다.

또한 교육부 디렉터로 일하시는 이 명예 전도사님은 여러가지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행사에 교인,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번에 Youth를 새로 담당하실 이성우 전도사님의 소개와 지금껏 Youth를 섬겨오신 성이삭 전도사님은 앞으로 EM 디렉터로 섬기신다.



EM 힐링캠프 준비

12월 26일(월)-29일(목)까지 EM Healing Camp 가 The Oaks (Lake Hughes,CA)에서 있을 예정이다.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Seekers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열정을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EM 성이삭 전도사님에게 문의 바란다. (문의: 818-665-6651)



예배자학교 개학

세 채플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예배자 학교(밸리채플 매주 금요일 7:45pm, 엘에이 채플 매주 목요일 7:15pm, 플러튼채플 매주 수요일 7:45pm)는 11주동안 Armors of God&Prayer Warrior 라는 주제로 아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알게하는 것이 이번 예배자 학교의 주된 목적이다.

다음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마하나임)로 이 땅의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승리케 하기 위해 우리 교육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 박희정 기자 |





말씀 · 찬양 · 기도 통해 몸과 마음 '힐링'



〈1면서 계속〉 밸리채플에 도착한 모두와 여러 사정으로 힐링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은, 여러 Seekers 들의 웃음과 눈물이 섞인 감동의 간증을 들으며,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느끼고 쉼어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

아무리 형용하려해도 좋은말로 기록할 수 없어 기사를 쓰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와 보라”이다.

앞으로 4기 5기 계속하여 힐링캠프가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신청을 하고도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에게, 머지않아 제 4기 힐링캠프가 열리게되면 세상의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 우선적으로 힐링캠프에 참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복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린다.

덧붙여, 이번 3기 주안에힐링캠프를 마치신 여러 성도님들이 내려오자마자 벌써 제4기 써포터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함께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 함께 세상을 향해 파송의 발걸음을 옮겼다.





받은 사랑, 사랑으로 보답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른 어떤 Camp에 참여했던 기억으로 그저 올라오게 되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는건지가 더 궁금한 것 같았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생각 속에 한가지! 오직 나를, 나만을 위한 은혜의 자리임을 알게하여 주셨다. 그 은혜는 나를 위해 수십명의 서포터즈들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셨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를 이렇게 많은 이들을 통해 비싼 돈까지 사용하며 나를 왜! 사랑하시는건지...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나를 내 마음의 추함을 알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라는건지 깨달아 알게 하셨다. 나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 너는 진정 나의 사랑으로 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신 우리 주님의 물음에, 나는 뭐라 답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감히 답해 드려 본다. 그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훗내 내보겠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전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갑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세상 속에서 외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범 장로 |



■ 힐링캠프 간증



성령의 따뜻한 터치, "너는 내 것이니..."

짧은 글 솜씨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속에 담아두기 감당치 못해 부족하나마 밖으로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항상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극히 연약한 자 중에서도 너무 보잘것없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없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지독히 교만한 중증 병자...

힐링캠프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영적인 회복,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뜨거운 사랑 고백, 그 뜨거움과 실례임으로 저의 심장을 다시 한 번 녹여버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올 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려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분의 보혈과 함께 내려오기를...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초신자도 아니건만... 첫날, 두려운 마음으로 또 조금은 어색하고, 또 조금씩 느껴지고 보여지는 겁나게 빠센(?) 무언가에 불평 불만의 시선을 가지고, 긴 것 같지만 짧았던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물론 몸 컨디션은 엉망이었고.. 하지만 불평을 하자면.. 끝이 없기에, '그래! 하나님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사위를 하리라!'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특히 왼쪽 아랫부분이 쿡쿡 쑤시면서 앉아있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앰블런스 생각까지..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날 저녁 만사를 듣고 이루어진 합동기도, 신유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 꿇고 있는 동안 갑자기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 이상하다? 아니겠지... 설마!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허리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왔 으면서도 전 여전히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분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다음날까지 계속 부여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으로 인한 기쁨, 행복..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제 몸과 마음에 가득차서 정말 몸치였던 저를 찬양시간에 방방 뛰게 하셨고 절대 음치라 밖에선 큰소리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남편의 간절한 부탁(?)도 잊어버린채 가슴터지게 뜨거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미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몸도 마음도... 미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마지막날)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폭신했습니다. '의자가 바뀌었나, 뒤에 쿠션이 있나? 하고 만져봤는데 똑같은 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이 딱 포개어 등을 받쳐주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교만하고, 능력도 힘도 없는것이 고집은 세고..고집은 세도 마음은 약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래도 순종하리라는 걸.. 하나님의 마

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항상 제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도 가끔 저는 '하나님 왜요? 제가 뭐예요? 저까짓게 뭐데...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꾸셨어요, 왜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빛진자로 부담을 크게 주시나요?' 힐링캠프 내내 물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또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노라고..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너는 내것이라고...반항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요 몇달을 방황을 했다했어. 새 보급 자리에 등지를 틀면서 너무나 사랑한 밸리채플을 떠나 플러튼 채플을 다니면서 제 마음이, 열정이, 사랑이 밸리에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반 힐링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풀어 플러튼 채플에서 다시 새로이 시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가슴 뜨겁게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너무 보잘것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특별한 은사도 없는 저같은 무능한 중증 병자인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뛰어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 박희정 집사 |



■ 힐링캠프 간증



지식을 뛰어넘어 말씀으로 도전받아

힐링캠프를 가기로 결정한 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꼭 듣고야말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내리고 이산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꿈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이 전혀 제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알게 되었고 더 확실히 알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불교집안의 장녀로 태어났고 남한테 지면 안 되고 뭐든지 일등을 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이 제 발 밑에 있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전 고등학교 때 교회는 공부하는 못하면서 남학생 만나러 불량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 단정 짓고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고 조롱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선배의 끈질긴 권유로 Christian Fellowship에 가게 되었고 수양회도 갔는데 그만 아빠한테 들켜서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전 비행기 안에서 '아빠가 하나님보다 더 세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기독교인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각서를 쓰



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공부를 마쳤어요. 어려움을 모르고 사셨던 저의 엄마가 신장암 수술을 하신던 날 저의 아빠가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보러 왔던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닌다'라는 아빠의 말씀 한마디에 전 교회를 1999년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자랐기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전혀 안되고 거짓말을 모아놓은 책 같아서 6년 동안 Sunday Christian으로 살았습니다. 2005년 5월 11일, 수요일에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그런데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살아 계신다면 저에게도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뒤 성경을 읽는데 거짓말처럼 다 믿겨졌습니다.

이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저의 지식이나 제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어김없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If you just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산장에 도착해서 지정된 방에 도착한 뒤에 가방을 놓은 그곳에 penny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penny이지만 저한테는 제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셨으면 penny를 발견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3일째 새벽 설교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5가지를 설교하시면서 3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장 몇 절은 말씀안하셨지만 전 금방 알았습니다. 저녁설교에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의 법칙, 언어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1일 새벽 설교 때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회개했던 것은 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사랑이라는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제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상처받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라고 주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으며,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 그 일을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힐링캠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을 이젠 실제로 제 삶에 적용하여 그대로 실천하며 승리할 수 있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크리스티나김 집사 |

■ 9교구(플러튼채플)

받은 은혜 나누고, 뜨겁게 기도

플러튼 채플의 9교구는 지난달에 7교구(이영진 집사, 명선 피택 권사)로부터 분가하여 새로 시작한 교구입니다.

교구장으로는 권상복 집사님과 권현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교구의 첫 구역예배로 권 교구장님 댁에서 1, 2구역 합동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권 교구장님 내외분이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들이를 겸해서 모인 구역예배라 더욱 뜻이 깊었습니다. 먼저 친정이랄 수 있는 7교구장이신 이영진 집사님 내외분께서 축하차 방문해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주심으로 교구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의 애잔은 권 현숙 권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주신 데다가 구역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한 가지씩 요리를 준비를 해주셔서 풍성하고 넘치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풍성하고 넘치는 9교구의 앞날을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고 믿습니다.

구역예배 인도는 1구역장이신 박만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깊은 집사님이 깊은 영성과 산 신앙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도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공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한 구역원들은 말씀을 토대로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고 주안예교회에 와서 받은 신앙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적용에서는 주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흠여지는 교회'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복음전도의 사명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박만규 구역장님께서 나누어주신 특별 간증은 모든 구역원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구원들이 모여 제3기 힐링캠프에 Seeker로 참석하는 구역원들을 위한 기도를 하였고 주안에 교회가 9교구를 비롯한 전 교인들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나라를 위한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를 위해 9교구가 먼저 출선수범하자는 다짐과 결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야외 예배 및 운동회에 전 구역원이 참석하기로 약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안에 세계 채플이 하나님나라에 가기까지 한 식구로 뭉치는 기적을 이루는데 9교구가 앞장을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3교구(벨리채플)

교회 봉사에 앞장서는 일꾼들

안동윤 집사와 안유은 권사가 교구장으로 헌신하시는 3교구는 두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1구역은 안동윤 집사와 안유은 권사가 담당하며 2구역장으로는 찬양팀에서 사역중인 강윤식 집사와 ICKidz 에서 총무로 봉사하고 있는 김혜원 집사가 담당하고 있다.

82년 생부터 56년생까지 총 12가정의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지만 마음만은 모두 82년생이라고 자부하였다. 아케디아, 라크라센타와 파사디나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구역원들이 흠여져 있으나 마음은 한 곳에 모였음이 분명한 것이 거의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 이상의 봉사를 하고 있으며 단지 주일 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시간을 내야하는 중책을 마다하지 않는다. 연령이 다양한 것 만큼이나 주차, 교육, 찬양, 사진부, 여전도회 회장까지 3교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와 함께 다니기 시작한 교회생활이 최혜담임목사를 만나 새로운 관점에서의 설교를 들으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 같다고 하는 안동윤교구장으로부터 열떨결에 시작한 신앙생활을 담임목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강윤식구역장, 교역자의 자녀로 쉽지 않은 시간에 무뎠뎠하고 밋밋한 마음에 빛을 따라 지금 이곳에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이유를 과부로 느끼며 살고 있다고 말하는 스티븐 윤집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저하던 어제가 있거나 했나 싶게 ICY 부장집사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해숙집사까지 3교구 식구가 없으면 교회가 마비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역식구의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가정에 허락된 자녀들도 5살에서 올해 UC Berkeley 새내기가 되는 자녀까지 교회의 손과 발이되어 수고를 허투루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남을 실감하게 하였다.

아케디아지역의 2구역과 라크라센타 지역의 1구역이 각각의 구역예배를 매달 드리면서 세 달에 한 번 전체 교구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만큼 매 주일이 교제의 자리가 되어 교구원들의 단합이 다른 모든 교구들의 귀감이 된다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고 유쾌한 길지 않은 만남을 마무리하였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장 4~5절)

| 채은영 기자 |

■ 한국찬송가 변천사

말씀으로 은혜받고 찬송으로 영광돌려

1892년 감리교 선교사인 Jones 와 Rothweiler 가 공동 번역한 27곡의 “찬미가”는 악보는 없고 가사만 적어 놓았지만 이것이 한국 찬송가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1894년 북장로교 언더우드선교사는 가사뿐만 아니라 악보도 함께 들어 있는 “찬양가”를 편집,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곡조 찬송집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인간이 지은 죄의 심각성,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치른 대속적인 죽음, 그에 대한 속죄 경험과 그로 인한 기쁨 등이 강조되어 있다. 이 “찬양가”는 서울지역에서만 사용되다가 1895년 “찬송시”로 117장의 찬송가를 수록, 공인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7곡의 한국인이 작곡한 곡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감리교회에서는 1895년 별도로 “찬미가”를 간행하여 사용하였는데, 대부분 중국어와 영어를 번역한 가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국에 많은 신앙인들이 나타나고 신앙의 경험이나 신앙적 감정표현에 문학적 세련미를 더해 초기 찬송가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찬송가가 요청되었는데 때를 맞추어,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총 266장의 “찬송가”를 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하였다. 가사의 문학적 세련미가 매우 높아졌고 우리나라 고유가락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다섯 곡이나 실리게 되었다. 이 “찬송가”는 1931년 “신정 찬송가”가 나올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이 찬송가는 인도자가 먼저 한



줄을 노래하면 회중이 그 말과 곡을 반복하고 둘째 줄로 옮겨가는 식으로 찬송하였다. 8·15광복 후 1946년 각 교파들은 합동 찬송가 사용에 뜻을 모으고 회합을 시작하여 드디어 1949년에 장로교·감리교·성결교가 함께 총 586장의 “합동 찬송가”를 간행하였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번역 등의 문제로 일부 수정을 하였고, 장로교에서 분리된 고려파에서는 예전의 “신편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했다. 1959년 장로교회가 다시 합동파와 통합파로 나누어지게 되자, 합동파에서는 고려파와 함께 찬송가 편집사업을 결의하고, 1962년 총 671장의 “새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즐겨부르는 ‘거룩한 성’은 이 “새찬송가”에만 수록되었다.

또한 기독교장로교, 감리교, 예수교장로교(통합), 성결교에서는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합동 찬송가”의 개편을 결의하고, 1963년부터 그 작업에 착수 한

국민 작사, 작곡 27편을 포함한 총 600장의 “찬송가”가 1967년에 간행되었다.

1977년에는 한국 개신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통일 찬송가”의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보수·진보의 양진영 교파를 포괄한 단일 찬송가의 편찬을 위하여 작업한 결과, 1983년에 총 558장의 “통일 찬송가”가 간행되어 찬송가 사용의 일치를 보고 약 20여년간 사용되었는데 여러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찬송가를 애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성경의 새 번역과 함께 찬송가도 87장이 늘어난 총 645장으로 이루어진 “21세기 새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128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통일 찬송가”에 한국인이 작곡한 찬송가가 17곡인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증가라 할 수 있겠다.

성경퍼즐
정답

<8월호>

비	두	니	아	아	나	니	아
밀			볼	모			론
	리		로	이	스		오
	기	스		고			르
		바	위	니		아	바
			에	시	온	게	벨
호	적		드		하		누
세			기		라		바
아	도	니	아		심	리	하

8월호 당첨자: 김명자, 김준교, 김지연, 박경원, 배석원, 안유은, 이용화, 이지혜, 정혜옥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입안에 향긋한 베이지 향이 가득하게 맛이 있고 영양 또한 풍부한 페스토 샌드위치는 다른 음식의 조력이 없이도 완전한 영양식이다.

페스토 소스

재료 바질 잎(fresh basil leaves) 2 컵, 잣(호두로 대체 가능) 2 큰술, 마늘 2 쪽(큰 것으로), 올리브 오일 ¼ 컵, 파마산 치즈(Parmesan Cheese) ½ 컵,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조리법 1. 바질 잎, 잣이나 호두, 마늘을 mixer(blender 나 food processor) 에 넣고 잘 간다.
2. 위에 올리브 오일을 넣으며 계속 갈아 부드럽게 만든다.

Pesto Grilled Cheese Sandwich

페스토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3. 치즈를 넣고 살짝 저어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고 쓴다.

페스토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1인분)

재료 빵 2조각(이탈리안이나 프렌치 토스트 용), 버터 1 큰술, 페스토 소스 1큰술, 아메리칸 치즈 1 조각, 스위스 치즈 1 조각, 얇게 썬 토마토 2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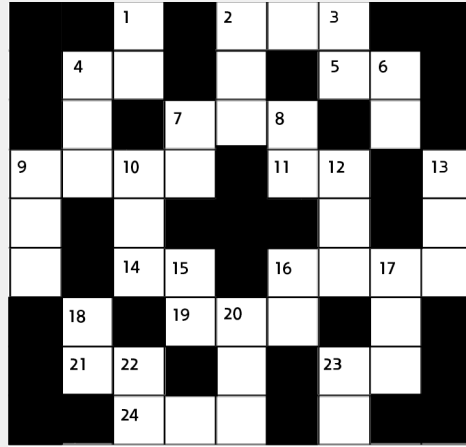
조리법 1. 빵 한쪽면에 치즈를 바르고 중간

불의 팬에 올린다.
2. 팬의 빵 위에 ½ 큰술의 페스토 소스를 바르고 스위스 치즈, 토마토, 아메리칸 치즈 순서로 놓고,
3. 나머지 빵 한쪽면에 버터를 바르고 다른 면에는 페스토 소스 ½ 큰술을 발라 팬의 샌드위치에 페스토 소스쪽으로 덮는다.
4. 빵이 노릇노릇하면 한변만 뒤집는다. 치즈가 녹고 양쪽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한쪽에 5 분 정도 소요된다.

박상신 기자(Recipe: 한금란 집사)

주안에 성경퍼즐

- <가로 문제> 2. 바로의 딸로 유다지파 메렛의 아내(대상 4:18)
 4. 로마 교우로 디모데에게 문안한 신자(딤후 4:21)
 5. 많은 사람이 마음을 한데 모음(삿 20:11)
 7.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하여 흠()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시 12:6)
 9.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고전 16:17)
 11.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문안한 하맛 왕(삼하 8:9-10)
 14. 고대제국의 정치, 문화와 서구 중심지요 사도시대 이후엔 기독교의 중심지(행 28:16)
 16. 에베소에 살던 신자(행 21:29)
 19. 일정한 곳에 넣어 드나들지 못하게 함(창 39:20)
 21. 임금이나 국가의 사명을 받고 외국에 가는 신하(수 9:4)
 23. 구약 제 8권째 성경으로 효도와 다윗의 혈통을 보여줌
 24. 성전에 딸린 창고(마 27:6)



7. 남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딤후 2:1)
 8. "배가 더디 가 여러날만에 간신히 () 맞은 편에 이르러"(행 27:7)
 9. 브리스길라의 남편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친막짚는 일을 하며 선교운동을 함(행 18:1-3)
 10. 모세의 장인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출 3:1)
 12. "창세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눅 11:50)
 13. 초기 순교자 안디바가 순교한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계 2:12-13)
 15. 신약 성경 제2복음서의 저자
 16. 유대인으로 율법을 반대하고 도당을 모집했다 헤롯 말년에 망함(행 5:36)
 17. "그가 또 ()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 <세로 문제> 1. 존엄함 사람이 성냄(출 15:7)
 2. 발람이 여기 제단을 쌓았으며 모세가 묻힌 곳(민 23:14)
 3.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 그녀의 바알 종교를 극력 지원함(왕상 16:29-33)
 4.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로 야곱을 더 사랑함(창 25:28)
 6. 마음의 비석(고후 3:3)

- 여부를 알고자 하매(창 8:8)
 18.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온천이 있는 곳(창 10:19)
 20. 아시아로 보내는 에베소, 골로새,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간 사람(엡 6:21, 골 4:7, 딤후 4:14)
 22. 신의 성경, 마음(롬 1:20)
 23. 베드로가 예니아의 중풍을 고침(행 9:35)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 차 • 매매 • 리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사라택시 Sara Taxi
 주정부 허가업체
 TCP 35881-B
 Airport Permit #
 LAX 11611242
(213) 408-6671
 공항 • 왕일관광 • 장거리 • 아울렛 • 통역 • 요세미티 • 세코야 • 샌프란시스코 • 팜스프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ph. Valley 818.363.5887 . LA 213.232.3163 .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주일 예배

- 밸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00, 2부 11:00

영성 집회

-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대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8:00pm

재방송: 매주(토) 1:00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6년 10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장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